

'남해로 오시다', 남해~서울·부산·대구 오가는 광역시티투어 운행 인기

입력 : 2021-11-11 14:20 | 수정 : 2021-11-11 14:20

경남 남해군은 교통편 이용이 어려워 남해 관광을 하지 못하는 외지 관광객들을 위해 대도시까지 오가는 광역시티투어를 운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남해와 대도시를 왕복하는 남해광역시티투어 버스 운행

내년 남해방문의 해를 앞두고 아름다운 남해와 주요 관광지를 적극 알리기 위해 기획한 관광프로그램이다.

남해 광역시티투어 버스 운행은 우선 부산·대구·전주·순천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이번달 주말부터 시작했다.

다음달 5일까지 매주 토·일요일 운행한다.

남해군은 오는 20일 부터는 가까운 순천 노선 대신에 서울 노선에 토~일요일 1박 2일 일정으로 광역 시티투어 버스 운행을 시작한다.

광역시티투어 남해 관광 코스는 '남해로'와 '오시다' 등 2개 코스로 구성했다. '남해로' 코스는 남해각·노량포구·이순신순국공원·앵강다숲·다랭이마을을 돌아보는 코스다.

'오시다' 코스는 남해 바래길(고사리밭길)·독일마을·설리스카이워크·남해읍(유배문학관)·이순신순국공원 등을 관광하는 코스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은 광역시티투어 버스 운행에 대한 반응이 좋아 전주~남해 광역시티투어 노선은 지난 6일 첫 운행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10차례 운행 모두 좌석이 완판됐다고 밝혔다. 부산과 대구 등도 예약이 잇따르고 있어 조만간 모두 완판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과 대구 노선 광역시티투어 버스 이용 요금은 1인당 2만 9000원이다. 남해군이 버스 1대당 운행하는날 하루 62만원을 지원한다.

남해군은 시범운영기간에 이용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불편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뒤 프로그램은 개선 방안을 구상하고, 내년에도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귀 프로그램을 개인·모판아고 노신들 밖내애 내년에도 운영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영호 남해관광문화재단 본부장은 "남해로 오시다 광역시티투어는 다른 지역에서 남해를 방문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교통편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인 거리까지도 가깝게 하는 관광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